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2. 10. 4
해외동향부 (제 6328)

■ **주요 뉴스: 미국 9월 제조업 활동, 둔화세 지속.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되며 주가 상승에 일조**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추가 노력이 필요

○ 영국 재무장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 철회

○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과도한 통화긴축은 글로벌 경기침체 초래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 둔화에 따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이 영향**

주가 상승[+2.6%], 달러화 약세[-0.4%], 금리 하락[-1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 금리 하락 및 저가매수 유입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으로 0.8%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2%,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 철회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9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432.2원, +0.2원) 강보합, 한국 CDS 하락

		10/3일	9/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678.4	3,585.6	2.59%
	유럽	390.83	387.85	0.77%
	중국	휴장	3,024.4	-
	일본	26,216	25,937	1.07%
	한국	휴장	2,155.5	-
환율	달러지수	111.66	112.12	-0.41%
	유로화	0.9826	0.9802	0.24%
	엔화	144.55	144.74	0.13%
	위안화	휴장	7.1160	-
	원화	휴장	1,430.2	-

		10/3일	9/30일	전일대비
국채 금리 10y	미국	3.64%	3.83%	-19bp
	독일	1.92%	2.11%	-19bp
	영국	3.96%	4.09%	-13bp
CDS 5y	한국	57bp	58bp	-1bp
	중국	106bp	108bp	-2bp
위험 지표	EMBI+	-	467	-
	VIX	30.10	31.62	-4.81%
원자재	WTI유	83.63	79.49	5.21%
	구리	341.0	341.3	-0.07%
	금	1,699.9	1,660.6	2.3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9월 제조업 활동, 둔화세 지속.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되며 주가 상승에 일조**

○ 9월 ISM 제조업 PMI는 50.9를 기록하여 전월(52.8) 및 예상치(52.3) 대비 하락.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비용 증가 등으로 소비자 수요가 감소했으며, 이에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47.1)와 고용지수(48.7)가 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

○ 이 외에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제조업체의 지불가격이 하락했고, 협력업체의 운송 시간 역시 개선.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다면, 8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 정점을 통과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

○ 기업들이 현재는 단기 측면에서의 수요를 확신하여 대량 해고를 단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장기 경기둔화를 우려하며 고용을 동결(ISM의 Timothy Fiore).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제조업 활동 둔화는 소비자의 지출이 재화에서 서비스로 단순히 이동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

○ 이번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가 상승(S&P500 3678.4 +2.59%) 요인으로 작용. 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 철회에 따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10Y: 3.64% -19bp)도 주가 상승 뒷받침

○ 최근 큰 폭의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도 주가 상승 요인. 그 동안 양호한 경제지표가 주가 하락을 유도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부정적 경제지표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B.Riley Wealth의 Art Hogan)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추가 노력이 필요**

○ 윌리엄스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발생하고 있으나 잠재된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아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 조치들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언. 물가안정의 책무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첨언

○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는 글로벌 공급망 및 인구구조의 변화, 국제 무역관계의 균열 등으로 인플레이션 변동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 이에 통화정책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설명. 한편 미국 달러화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연준은 미국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

■ **유로존 9월 S&P Global 제조업 PMI, 27개월 만에 최저. 생산 감소 등이 원인**

○ 유로존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48.4로 전월(49.6) 및 예상치(48.5) 하회. 세부 항목 가운데 생산지수(46.3)가 특히 부진. 고물가 및 향후 경기 불안 등이 당분간 제조업 활동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S&P Global의 Chris Williamson)

■ **영국 재무장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 철회**

○ 콰텡 재무장관은 감세 정책 가운데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인하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 전체 정책이 아닌 일부 감세 부분에 대한 변경이지만 향후 트러스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조정도 가능할 전망

■ **일본은행 일부 위원,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계할 필요**

○ 최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예상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이에 일본은행 내에서 구로다 총재의 초저금리 유지 기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제기

■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과도한 통화긴축은 글로벌 경기침체 초래할 가능성**

○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의 문제이기에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금리인상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공급 확대가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 또한 일부 저소득 국가들은 금리인상 영향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 한편 이날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 정부가 통화긴축에 부합하는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할 때 경기침체 모면이 가능하다고 진단.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

■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 가스 공급 부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

○ 내년 글로벌 가스 소비가 금년 대비 0.4% 증가하고,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높은 수준의 가스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클리블랜드 연은·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강연

○ 미국 8월 공장수주, 8월 JOLTS 구인건수, 유로존 8월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국채시장의 '변동성 소용돌이', 경기침체 압력을 가중 - Financial Times**

(UK government bond tumult ripples into US and European markets)

○ 최근 글로벌 국채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일차적으로 영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실험에서 비롯되었지만,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도 고물가와 저성장 사이에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잠재적 정책 실패 위험을 공유

○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대규모 포지션 청산과 거래 위축에 따른 시장 유동성 저하 등이 거론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변동성 소용돌이(volatility vortex)'로 묘사되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은 글로벌 경기침체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진단

■ **미국 달러화, 주요 외환당국의 개입 이후에도 강세가 지속될 소지 - 블룸버그**

(Gatsby, the Dollar, and Staring Blankly at the World Falling Apart)

○ Citigroup에서 발표하는 미국 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가장 고평가된 수준이며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

○ 최근 단행된 일본 외환당국의 달러화 매도 개입, 영란은행의 긴급 국채매입 발표,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구두개입 등 주요 경제국들의 잇따른 시장 개입은 달러화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실질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방증

○ 그러나 현재의 달러화는 신흥국보다 선진국 통화 대비 강세폭이 크고,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될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통화당국의 정책 목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OPEC+의 감산 전망, 실제 원유공급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블룸버그**

(Oil Output Cut Will Underwhelm Without a Big Change)

○ 최근 OPEC+가 11월 목표 산출량을 10월 대비 큰 폭 축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 그러나 금년 OPEC+의 실제 생산량은 이미 대다수 회원국의 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목표량을 크게 하회. 이에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회원국 간 생산목표를 재분배하지 않으면 실제 원유수급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12월 EU의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 제재가 시행될 예정. OPEC+의 여타 회원국들이 단기간 내 생산증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산 원유수입이 금지가 시작되면, 수급 불균형 심화를 초래할 우려

■ **미국 제조업의 성장 가능성,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 - Financial Times**
(Investors are learning to love industry again)

○ 미국 제조업은 코로나 19 이후 고용과 이익 등에서 성장 복원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는 공급망 불안에 따른 국내생산 선호 확대, 중국과의 지속적인 분리 등이 영향. 또한 지역 기반 중소기업들도 투자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

○ 맥킨지 역시 보고서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반면 저평가된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연구개발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평가. 향후 기술주 버블이 줄면서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전망

■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 국경절 연휴 기간 중 역외 시장에 주목 - 블룸버그**
(Yuan at the Mercy of Overseas Traders Puts China on Alert)

○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절 연휴를 틈타 외환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역외 위안화 시장을 중심으로 약세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이에 인민은행은 국영은행들에게 역외 시장에서 달러화 매도를 준비하라고 구두 지시하는 등 대비에 나섰으나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이가 지속되고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위안화 약세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긴축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에 직면할 전망 - WSJ**
(Central Banks' Higher Rates, Bond Sales Clash With Government N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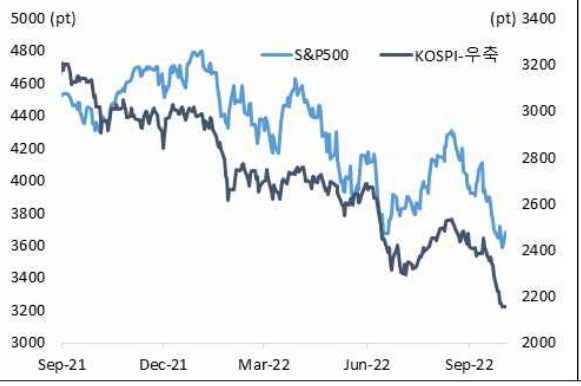
■ **주요국 통화정책 변동성,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 - 블룸버그**
(Welcome to the Scary, New Inflationary World)

■ **유럽의 고물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미국보다 장기간 지속 예상 - 블룸버그**
(Inflation in Europe Now Looks Even Less Transitory Than in US)

■ **영국 정부, 적절한 부채관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 노력이 필요 - Financial Times**
(The government must remember that debt matters)

금융시장 주요 지표

S&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

자료 : Bloomberg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

자료 : Bloomberg

VIX 및 EMBI+

달러-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